

일편청심 (一片靑心)

그 해 겨울
누이와 몸을 눕힌 골방은
서릿발처럼 차가웠다

가난으로 가득 채운 쌀독을
건져내고 건져내도
바가지에 가라앉는 것은
짙은 슬픔 몇 톨

흙 없는 마음보다
타인의 주머니 속 황금을
생의 고귀함이라 믿은
그런 날이 있었더란다

맑고 시린 누이의 눈물로
이제 겨우 영글기 시작한
작은 가슴을 뾰드득 닦는다

한 조각 푸른 마음
쌉싸름한 눈물위에 싹을 틔워
삶의 어느 순간에서도
더는 헤매이지 않으리

그리하여 다시금
고난이 문을 두드려도
뿌리내린 푸른 등대 하나
늘 가슴 속 별빛처럼 반짝이리라